

2018년 12월 14일, 제주시 연동 고응상 씨 댁, 이효순 조사.

고응상(남, 1949년생, 제주시 연동)

- 제주시 삼도동에서 태어났으며 70년째 제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다.

- 줄거리: 제주도에 중국보다 더 큰 인물이 난다고 하여 고종달을 시켜서 지혈(地血)을 전부 끊도록 했다. 고종달이 임무를 완수하여 돌아가려고 배를 타고 차귀도를 지나는데 화가 난 한라산 산신령이 큰 돌을 던져서 풍랑이 일면서 배는 결국 돌아가지 못했다고 해서 차귀도라는 지명이 되었다.

[제보자] 옛날에 중국에 진시황인가 그 전국시대에 고종달이가 진시황인가 제주도에 유명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서, 진나라보다도 큰 인물이 난다고 해서 황제가 고종달이란 지관을 시켜서 제주도에 가서 지혈을 다 없애라고. 명을 받아서 고종달이가 왔는데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 혈을 다 거의 다 찾아서 돌아갈려고. 혈을 다 떠서 큰 인물 나지 못하게 했어.

제주도 거 다 했는데 임무 완수해서 가서 차귀도로 가려고 차귀도가이 앞바다 배 타서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면서 제주도 한라산 산신령이 화가 나서 자기 자손들을 큰 인물 날 거 다 죽였다 해서 큰 돌을 던졌는데, 고종달 배 위에 던졌는데 배에 돌 떨어지면서, 떨어졌어. 그 바위가.

고종달이가 돌아가지 못했다 해서 차귀도라는 말이 났다고 하는 말도 들었고. 고종달이가 돌아가지 못했다고 했어.

[조사자] 돌아가는 걸 차단?

[제보자] 차단시켜서. 차귀도라 한 말도 들었다. 그게 그래서 산신령이.

- 핵심어: 차귀도, 고종달, 지혈(地血), 산신령, 바위, 한라산, 배, 돌, 지관, 진시황, 풍랑